

보도시점 2025. 7. 17.(목) 09:00 배포 2025. 7. 17.(목) 09:00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전시회 일민미술관 기획 '다시 그린 세계 2025' 개최

- 8.8.~10.11.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해 한국화의 계보를 소개하는 기획전 개최
- 한국 문화·예술 해외에 알리는 민관 협력 '2025 투어링 K-아츠'의 일환
- 동시대 한국화 작가 5인과 겸재 정선, 추사 김정희 등의 미술관 소장대가의 작품들을 선보여

주일한국문화원(원장 박영혜, 이하 문화원)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일민미술관(관장 김태령)과 함께 8월 8일(금)부터 10월 11일(토)까지 '다시 그린 세계 2025' 기획전을 문화원 1층 갤러리MI에서 개최한다.

'다시 그린 세계 2025'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재외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국내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해외 순회를 지원하는 '2025 투어링 케이-아츠(Touring K-Arts)'에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2022년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다시 그린 세계: 한국화의 단절과 연속'을 원형으로 '한국화'가 다루는 주제, 재료, 기법이 지닌 확장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번 전시는 특히 일본을 외부의 시선으로 삼아 '전통과 현대', '단절과 연속'이라는 한국화에 내재한 이중적 배경을 조명한다. 일민미술관 소장 작가인 겸재 정선, 추사 김정희 등 10명의 역사적 대가를 소개하는 한편,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젊은 작가 5명의 작품을 병치하며 한국화의 과거를 현재의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본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을 정체된 유산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힘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시도이며 한국화를 통해 양국의 문화를 잇는 문화교류 사례로서 의의를 갖는다.

'다시 그린 세계 2025'는 용어의 측면에서 한국화의 이중적 배경을 살피며 출발한다. 조선 시대 말까지 그림(畵)은 글씨(書)와 더불어 서화(書畵)의 범주로 다루어졌으나, 한국화는 그림만을 분리한 독립적인 체계로 창안되었다. 따라서 한국화는 전통 회화와 거리를 두면서 서양화와의 자연스레 구분되는 고유한 영역으로 성립한다. 새로운 용어에 대한 담론 창출과 제도를 설립하는 과정은 식민 시대에 도입된 용어인 '동양화'를 비판적

으로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다. 1950년대에 등장하여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한 한국화 개념은 해방 이후 공동체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했고, 이에 따라 중국의 국화(國畫), 일본의 일본화(日本畫)와 다른 궤적의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즉 ‘한국화’는 보편적 근대 담론과 특수한 지역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장르로서 한국 사회가 역사의 굴절을 경험하며 구축해 온 현대성을 보여준다.

도전적인 시대의 변화를 직면하며 논쟁적으로 발전해 온 한국화는 동시대로 이어지며 현대미술과의 단절을 가로지르기를 요구받는다. 동시대 작가 박그림, 배재민, 손동현, 정해나, 최해리의 모사, 참조, 변용은 간극을 메우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공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도약이다. 이들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는 ‘다시 그리기’를 통해 모순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수행을 거듭한다. 전시가 제시하는 질문과 응답은 과거를 지금 이곳의 열린 장(場)으로 끌어 올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역사의 영향력을 성찰하면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시 그리기가 품은 의미를 나눈다. 이러한 돌아보기는 공통의 문화를 상호참조하며 각자의 동시대를 짚은 양국의 관계에 더욱 각별하다.

‘다시 그린 세계 2025’는 문화원내 갤러리MI에서 8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일요일과 주재국 공휴일,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그리고 한일축제한마당이 열리는 9월 27일에 휴관한다.

문화원 박영혜 원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겸재 정선, 추사 김정희 등의 대가부터 이어진 현재 한국화의 모습을 일본에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전시회를 통해 한국화와 일본화의 학술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1. ‘다시 그린 세계 2025’ 행사 개요 및 전시 홍보물.
2. ‘다시 그린 세계 2025’ 주요 전시 작품. 끝.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전시담당자	팀 장	하성환 (+81-3-3357-5970)
		홍보담당자	팀 장	조은경 (+81-3-3357-5970)

□ 행사개요

- (행 사 명)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전시회 ‘다시 그린 세계 2025’
- (일 시) '25. 8. 8.(금) ~ 10. 11.(토)
- (장 소) 주일한국문화원(일본 도쿄)
- (주 최) 주일한국문화원, 일민미술관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요내용) 겸재 정선, 추사 김정희 등 역사적인 거장의 작품부터 박그림, 배재민 등의 현대작가가 그린 한국화 총 32점 전시
 - 참여 현대 작가 : 박그림, 배재민, 송동현, 정해나, 최해리
 - 미술관 소장 작품 : 겸재 정선, 추사 김정희, 오원 장승업, 심전 안중식, 이당 김은호, 정재 최우석, 소정 변관식, 월전 장우성, 남정 박노수, 산정 서세옥

□ 전시 홍보물



행사 전단지 앞면



행사 전단지 뒷면

□ 전시 홍보물



박그림, 〈간택_회 Chosen_revert〉, 2023,
Color on silk, 170×230cm, ©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손동현, 〈왕의 초상(인 더 클로젯) Portrait of
the King (In the Closet)〉, 2008-2009, Ink
and color on paper, 194×130cm, ©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최혜리, 〈토끼의 뿔 Rabbit Horn〉, 2018,
Color and ink on silk, pigment, painted wood,
79.5×58cm, ©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윌전 장우성, 〈미인도 Beauty〉, ca.1940s,
Color on silk, 128×65.3cm, ©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촬영: 서울특별시,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오원 장승업, 〈군안도 Wild Geese〉, ca.1800s,
Ink on paper, 78×277cm, ©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촬영: 서울특별시,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추사 김정희, 〈반야심경첩 Heart Sutra〉,
ca.1800s, Ink on paper, book, 26×15cm, ©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촬영: 서울특별시,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